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4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26일(음력 2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선명상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 정관계 인사들이 기공식에 대거 동참해 시삽하며 선명상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법도량으로서의 첫 발을 축하했다.

봉선사, 교구본사 선명상센터 1호 '첫 삽'

3월 18일, 명상체험센터 기공식
진우 스님 "열린공간 국민쉼터를"
政관계자 "적극 지원할 것" 약속
문화센터 형태, 2026년 완공 예정

남양주 봉선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대규모 명상체험센터 건립의 첫 삽을 뜨며 선명상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법도량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선명상센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K-선명상을 주도할 센터는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 세계화를 통해 지역활성화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봉선사는 3월 18일 경내에서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들과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 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249번지에 건립될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총면적 3만905㎡에 건축면적 2744㎡, 연면적 42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9.26m 규모다. 불교명상관, 웰컴센터, 명상마당, 참선동, 명상 미디어영상관, 관리동 등으로 구성된다.

봉선사는 2023년 9월, 센터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의를 시작했다. 2024년 1월 경기도로부터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으로 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정받았고 이후 건립부지 지반조사 등을 거쳐 2025년 3월 14일 건축허가처리가 완료되면서 이날 기공식을 봉행할 수 있었다. 이날 첫 삽을 뜬 센터는 190여억 예산을 들여 전통적이면서 품격 높은 문화센터의 모습으로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봉선사 명상체험 센터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삼학과 팔정도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행처이자 열린 공간으로서 국민들 마음의 쉼터가 되길 기대했다. 아울러 봉선사가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선명상 가르침을 전파하며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량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길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포교 전진 도량 건립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접하고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길 기원한다"면서 "봉선사 선명상체험센터가 불교 수행의 중심이자 선명상의 대중화를 이끄는 소중한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큰 도움을 준 각계각층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센터를 활용해 모든 이들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전법의 길에 봉선사 사부대중은 온 마음을 합쳐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어른스님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 불사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선명상센터 건립은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활발한 전법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선사가 선명상센터 건립으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각계각층에서도 센터를 향한 기대를 표했다.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는 "대표적인 교종 본찰인 봉선사에 센터가 건립되면 선과 교가 어우러지는 기도정진 도량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센터 건립으로 선명상이 원활히 보급돼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한국불교와 종단이 중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도 "모두의 원력으로 세상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는 화합과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마음평안을 지향하고, 화쟁정신으로 원융무애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의 필요성을 전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위로하는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봉선사가 마음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곳이자 K-명상 세계화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길 기대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남양주시장과 도시사,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 숙원 '로터스관' 건립불사 추진 본격화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사업 승인
박물관, 선센터, 연구시설 들어서
올해 9월 착공…2028년 8월 준공



새로 조성될 동국대 로터스관 모형.

동국대의 숙원 사업인 '로터스관'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3월 19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60회 이사회를 열고 로터스관 신축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승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동국대의 '로터스관'은 6년 만에 신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총 연면적 2만6502㎡, 건축면적 2843.46㎡에 본관 지하3층~지상3층(2411평), 별관 지하 6층~지상 2층(5619평)으로 지어지는 '로터스관'에는 박물관·선센터·사무공간·교육연구시설·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동국대는 '로터스관' 변경설계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선정 등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8년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터스관' 신축은 지난 2012년에 남산공원 구역이 해제 된 후 동국대가 추진 해온 불사다. 역대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이 해당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중문 일대 국유지를 매입하며, 기공식도 개최하기도 했다.

동국대 중문(혜화문)에 로터스관이 신축되면 동호로와 바로 연결돼 사람과 차량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언덕이었던 학생들의 통학로도 평지화 된다. 또한, 주변 유명 호텔과 체육관들과 연계되는 동국대 '로터스관'은 학교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사들도 신축되는 '로터스관'이 동국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식 이사는 "이번 로터스관 신축불사는 서울캠퍼스 종합발전 계획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로터스관은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로터스관 신축은 동국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불사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며 최적화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부처님의 밝은 빛이 교정에 가득 채워져,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올해 봉축표어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봉축위, 3월 20일 발표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스님)가 3월 20일 발표한 봉축표어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은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며 이를 사회와 세상에 확산함으로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자는 뜻을 담고 있다.

봉축포스터는 연꽃 위에 좌정한 부처님 모습과 부드러운 빛의 퍼짐을 통해 '자비의 마음이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표현하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 부처님오신날의 환희로운 분위기와 함께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이에 봉축위원회는 연등회를 종교·성별·국내외·계층을 초월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범어사 금강계단 산림

제125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불기 2569년 4월 11일~12일(음 3. 14~15) 오전 10시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접수처_재적사찰 및 범어사 원주실
문 의_051)508-3636
大韓佛敎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